

교황청 세계성체대회위원회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네”(시편 87,7)

성체성사, 교회의 생활과 사명의 원천

제52차 세계성체대회 준비를 위한 신학적 사목적 성찰

헝가리 부다페스트

2020년 9월 13-20일

1. 들어가는 말

1.1. 세계성체대회

세계성체대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교회의 관행에서 성체성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가치를 드높이는 교회의 큰 공식 행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성체대회는 1881년에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언하고자 시작되어,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과정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성찬례 거행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인간답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는 이미 1938년에 기억에 남을 만한 세계성체대회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계성체대회는 82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서 새롭게 거행됩니다.

1.2. 헝가리에서

헝가리는 매우 뿌리 깊은 그리스도교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첫 임금인 스테파노(Stefano, 1000-1038년) 성인은 헝가리 백성을 유럽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최근의 순교자들도 꽤 있지만, 특히 중세에 헝가리를 통치하던 왕조 가운데 아르파드(Árpád) 왕조 때에 가톨릭 교회에는 상당수의 성인이 났습니다. 선조들이 보여 준 그리스도교 신앙과 절개, 가르침과 모범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헝가리 백성이 잘 참고 견디어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의 격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이시다.”

헝가리는 1938년에 “성체성사, 사랑의 유대(Eucharistia, vinculum caritatis)”라는 주제로 세계성체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엄청난 긴장에 휩싸여 있었고,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새로운 전쟁의 위기 앞에서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세계성체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오, 주님, 모든 백성과 민족을 평화로 다시 모아들이소서.” 이 노래는 오늘날에도 계속 불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오십만 명이 참여한 행렬과 파견 미사는, 민족들 간의 평화를 도모하고 임박한 전쟁의 위협에 맞서는 일종의 시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제2차 세계 대전은 피할 수 없었고 헝가리에도 비탄과 희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후 종전 무렵에,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을 40년 동안 박해하고 억압하였습니다. 종교 신분과 수도회를 폐지하였고,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을 감금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으며, 무신론자라고 선언한 공산주의 체제의 탄압과 억압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8개 인문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가톨릭 학교를 국유화하였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해외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교 신앙과 가치는 카타콤바(지하 묘지) 안에서 살아남아, 불법으로 활동하던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종교 교육을 받지 않은 채 2-3세대가 자라는 동안, 주일을 지키는 신자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종

교적 무지의 확산과 신앙에 대한 무관심의 뿌리가 되었고, 또한 이따금 수십 년간 이어진 반성직주의 선전에서 비롯된 교회에 대한 적개심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1989년 체제 변화와 ‘해방’ 이후, 헝가리에서는 종교적 실천이 어느 정도 다시 꽃피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로 되돌아가, 가톨릭과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의 유치원,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일부 그리스도교 가치관이 정치와 입법 과정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다시 문을 열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새로운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교파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부분적인 물질적 보상을 받았습니 다. 다양한 형태의 봉헌 생활이 새롭게 힘을 얻어 고유한 활동을 재개하였고, 카리타스의 봉사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점점 더 많은 평신도들이 공동체와 본당 생활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래로 30년 동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헝가리에서도 세속화, [교계제도에 반대하는] 평신도화, 물질적 복지에 대한 추구, 상대주의, 불가지론 등으로 종교 생활과 신앙의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천만 명의 헝가리 인구 가운데 7-10퍼센트의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자들의 평균 연령은 증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젊은이들에 대한 복음화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생활은 물론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찾는 어른들이 한층 더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의 사회적 현존은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3. 대회의 목표

2020년 세계성체대회 준비와 거행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 문화유산과 우정을 나누는 많은 이들은 사회 앞에서 다 함께 공공연히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 6세 성인이 말했듯이, 사실 현대인은 “스승의 말보다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는다면 스승이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¹⁾

세계성체대회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을 강화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찬의 샘에서 출발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희망과 삶과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은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와 또 형제들과 나누는 친교가 깊어집니다. 그리하여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담대하고 차분하게 사랑과 온유를 지니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성체대회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보다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들이 더욱 많은 확신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미래의 길을 찾고자 공공연한 문제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1)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1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제3판), 41항.

믿는 이들이 함께 이루어 낸 증언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과 조건은 다르지만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세계성체대회는 최초의 복음 선포인 케리그마(kerigma)를 전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에 당신 아드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서는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말씀과 메시지,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고,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당신 교회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악을 등지기로 기꺼이 결심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큰 가정을 이루고, 하느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건설하게 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거행되는 성체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의 샘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헝가리 전역뿐만 아니라 중부 유럽의 국가들에도, 유럽 전체에도, 온 세상 안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영적 쇄신의 순간, 복음적 방향, 불확실성을 이기는 믿음의 불씨, 슬퍼하는 사람을 위한 희망의 빛, 외로움과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2.1. 생명의 샘이신 하느님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삶이든 초자연적인 삶이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²⁾ 현재의 삶에 꼭 필요한 양식도 그분의 선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상징적인 이야기(창세 2,4-25)에서도,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로 가득 차 있고 네 개의 강줄기가 흐르는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재화도 하느님에게서 받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관심은,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이야기에서도 중심을 이룹니다.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탈출 16,1-15),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의 형태로 필요한 음식을 보장해 주시는 분도 같은 주님이십니다(탈출 17,1-17; 민수 20,1-13). 후기의 성경 전승은, 이러한 실재가 하느님에게서 직접 얻게 되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무엇보다 시편에서 드러납니다. “사막에서 바위들을 쪼개시어, 심연에서처럼 흡족히 물을 마시게 하셨다. 돌덩이에서 시내들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시편 78[77],15-16.24-25). “그들이 청하자 메추라기 떼를 불러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배불리셨다. 바위를 여시자 물이 솟아 나와 사막에 강처럼 흘렀다”(시편 105[104],40-41).

물에 대한 전승과 관련하여, 그것이 바위에서 솟아 나올지언정, 그 본래의 원천은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물은 단지 음료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영적 재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는 은유적 의미가 매우 탁월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시편 36[35],10).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불충을 이렇게 나무랍니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예레 2,13).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약속이 이사야 예언자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이사 12,2-3).³⁾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 본문은, 하느님께서 생명의 샘이시며 구원의 전망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은총이 그 샘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2) 비잔틴 교회 신자들은 매일 아침, 시간 전례에서 다음과 같이 되뇌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3) 제2이사야서에 제시된 초대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이사 55,1).

2.2.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요한 7,37)

신약 성경에서 영적 재화의 상징인 물은 특히 요한 복음에 나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요한 7,37-38). 7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에 신심 깊은 이스라엘인들은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인 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초막절 7일 동안,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금으로 만든 병에 물을 담으려고 이른 새벽마다 실로암 못으로 향하며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를 노래했고, 군중은 이들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돌아와 제대 위에 그 물을 부었습니다. 이 대축제에 비추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예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샘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입니다.⁴⁾

그런데 복음사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과 연관 짓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영광,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를 믿는 이들이 받은 바로 그 성령입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숨을 거두셨을”(요한 19,30) 때입니다.⁵⁾ 한 군사가 창으로 찢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요한 19,34), 이는 교회 전승에서 세례성사(물)와 성체성사(피)를 일컫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감사송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심장이 찢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니, 거기서 교회의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나이다.”⁶⁾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성찬적 해석은, 요한 복음 6장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 끝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살을 양식이라고, 자신의 피를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요한 6,53-58). 피와 물은 성령과 함께 요한의 첫째 서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1요한 5,7-8).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샘이 됩니다.

바로 성인도 코린토 1서에서 조상들의 광야 탈출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1코린 10,3-4).

4) 오리게네스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과 초막절의 성격을 고려하여, 생수의 강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고 여긴다. R. Schnackenburg, *Das Johannesevangelium II*, Freiburg, 1980, 214; 요제프 라칭거/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I』(*Jesus von Nazareth I*), 바티칸 시국, 2007, 289 참조.

5) I. De La Potterie, *Studi di cristologia giovannea*, Genova, 1986, 285면 참조.

6) 『로마 미사 경본』(*Messale Romano*)에 있는 이 감사송은, 『요한 복음 강해』(*Tractatus in Iohannis Evangelium*), CXX,2에 나오는 아우구스티노의 해석을 되풀이한다. *Nuova Biblioteca Agostiniana (NBA)*, vol. XXIV/2, 1912면.

2.3.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네”(시편 87[86],7)

개별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인 전체 교회의 입장에서도, 성찬례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러나 성찬례 거행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려면, 교회의 중재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번 세계성체대회 주제 정해진 바로 그 본문인 시편 87[86]편⁷⁾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그 터전,
주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니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컬어지는구나.
나는 라합과 바빌론도 나를 아는 자들로 셈한다.
보라, 필리스티아와 티로도 에티오피아와 함께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일컬어진다.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기록하며 헤아리신다.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노라.’
노래하는 이들도 춤추는 이들도 말하는구나.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네.’”

이 시편은 이른바 “시온의 노래”에 속하며, 예루살렘의 뿔핌과 특권적 지위가 그 중심 내용입니다.⁸⁾ 이 시편의 첫머리에 언급된 대로, 주님께서 “시온의 성문”을, 곧 다윗 왕조의 성전과 거처가 있는 거룩한 도시를,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더욱 사랑하십니다.⁹⁾ 이어서 같은 야훼께서는 당신을 “아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부여하십니다.

시편에 담긴 약속은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집트(라합)와 바빌론으로 시작되는 목록입니다. 주요 적대 민족들이었던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도성의 완전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이후 이 목록은 계속해서 주요 민족들을 나열합니다. 이집트/서방 민족 - 바빌론/동방 민족 - 필리스티아와 티로/북방 민족 - 에티오피아/남방 민족. 이 다섯 민족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이전의 적대 민족들은 하느님을 알게 된

7) 시편은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 표기에 따른다. 칠십인역과 대중라틴말성경에서는 시편 86편에 해당한다.

8) 시편 46, 48, 76, 84, 87, 122편이 시온의 노래로 분류된다.

9) G. Ravasi, *I Salmi II*, Bologna, 1986, 800 참조.

덕분에 이 거룩한 도성에서 다시 일치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편의 끝머리에서 바로 이 모든 민족은 전례 거행의 맥락에서 다시 모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네.”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생수의 샘이 된다는 개념은 예언서들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즈카르야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 줄 샘이 터질 것이다”(즈카 13,1). 에제키엘서에도, 성전의 동쪽에서 흘러나와 배가 다닐 수 있는 큰 강이 되는 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에제 47,1-12). 시편 87[86]편처럼, 이 예언서 본문들은 풍요와 다산과 평화를 특징으로 하는 천상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 줍니다. “비옥하고 푸릇푸릇하며, 즐겁고 축복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시온에서부터 발전해 갑니다.”¹⁰⁾

그리스도교 전승에서는, 참 시온인 “천상 예루살렘”이 교회와 동일하다는 확신 안에서 시편 87[86]편을 교회와 관련하여 읽습니다(갈라 4,26; 히브 12,22-24 참조). “시온은, 실제로 다루어지는 시온의 모습 또는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재현한 지상의 도시였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갈라 4,26 참조)”.¹¹⁾ 교회는 구원된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묵시 5,9)에서 나왔으며, “영과 진리 안에서”(요한 4,24)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치를 되찾아 한 몸을 이룹니다.

바로 사도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 코린 10,16-17).

성찬례 거행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친교를 이루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한 몸, 한 공동체가 됩니다. 신자들이 물을 퍼 올리는 그 샘은 그들 사이의 일치에 대한 참다운 보증입니다.

10) *I Salmi II*, 802면.

11) “Erat enim quaedam civitas Sion terrena, quae per umbram gestavit imaginem cuiusdam Sion de qua modo dicitur, coelestis illius Ierusalem de qua dicit Apostolus: Quae est mater omnium nostrum.” *Enarrationes in Psalmos*, 86,2, NBA, vol XXVII/I 참조.

3.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인 성찬례

3.1. 신약 성경의 기본 요소

교회 역사의 시작부터, 교회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1코린 11,24)라는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성찬례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를 ‘주님의 만찬’(1코린 11,20)과 ‘빵을 떼어 나눔’(사도 2,42)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명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두 명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 만찬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그리고 사도 교회가 이 예식을 거행하고자 함께하는 모임에 성찬의 신비를 결합시켜 줍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은 성찬례 행위가 어떻게 처음부터,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과 행동을 기억하면서 주님(Kyrios)의 파스카 신비를 재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어 왔는지 분명하게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죽음과 생명의 파스카 신비를 미리 보여 주는 예언적 행위로 빵을 쪼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당신을 내어 주십니다. 쪼개진 빵은 그분께서 내어 주신 몸과 같으며, 나누어 마시는 포도주는 그분께서 흘리신 피와 같습니다. 이러한 내어 줌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는 식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친교와 용서의 사건으로 제시됩니다. 이렇게 최후 만찬은 파스카 사건 전후, 예수님의 온 존재에 대한 해석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곧, 믿는 이들이 그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죽음과 생명의 신비로 설명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예수님께서 당신 지상 생애 동안 스승으로서 죄인들과 함께하신 식사의 맥락과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하신 식사의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어, 메시아 시대를 위하여 예언자들이 예고한 보편적 용서가 이제 당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하시며 모든 이가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밝히셨습니다(이사 25,6).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한 명의 제자들과 함께하신 식사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재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사의 파스카 표징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현존하심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은 특히, 사도 공동체의 성찬 신앙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빵을 떼어 나누는 행위 안에 당신께서 현존하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당신 파스카를 거행하는 것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요한 13,1)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였다면, 제자들에게도 성찬 기념제는, 그분 교회 안에 부활하신 분께서 현존하심을 선포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끊임없이 건너가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빵을 떼어 나눔’

이 표현은 유다 사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빵을 떼어 나누고 한 식탁에서 먹기 위해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는 친교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빵의 나눔은 교회의 구조 안에 포함됩니다. 믿음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사도 2,46),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사도 2,42).

새로운 파스카를 기억하는 이 빵의 나눔에는, 공동체 책임자들이 설명해 주는 하느님 말씀의 들음,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형제적 식사(아가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에서의 기도는 곧, 고대하는 시기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식탁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공동체는 사도들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체험을 지속해 나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단 한 번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경축합니다. 바오로의 마지막 전교 여행 중에 트로아스에서 거행한 빵을 떼어 나누는 이야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확신이 나타납니다(사도 20,7-8.11).

바오로의 증언

50년부터 바오로 성인은 자신이 회심했을 때와 안티오키아와 예루살렘 공동체와 처음 만났을 때 받아들인 것들을 코린토 공동체에 전하였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11,17-34)에서, 사도는 공동체가 성찬 모임에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바오로가 고심한 부분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성찬례의 내용에 대해, 그리고 믿고 거행하고 살아야 하는 방식에 대해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코린토에서는 형제적 친교를 드러내어야 하는 공동 식사가 성찬례 거행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어 성찬 행위가 생겨난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성찬 모임은 형제애와 연대 의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친교와 연대를 표현하기는커녕, 마음을 분열시키고 불평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오로는 이러한 모임은 더 이상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하신 만찬의 참된 의미를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애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주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성찬례의 깊은 의미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바오로는 자신도 받은 것을, 곧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일러 줍니다. 만일 성찬례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기념이라면, 빵과 잔을 받아 모시는 것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와 함께 생명의 친교를 이루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적 친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어 주신

몸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실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과 “생명의 빵”

요한 복음사가는 분명히 사도 교회의 성찬례 관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찬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이야기가 이미 그의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었고 전례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심오한 이유도 있습니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온 체험,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당신께 이끌어 들이시고자 아버지께 되돌아가신 예수님의 모든 체험을 아우르는 매우 폭넓은 맥락에서 성찬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강생)**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에게로(죽음과 부활)** 건너가시는 위대한 파스카 여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건너감으로 인류 구원이 드러나고 실현됩니다.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요한 6장)는 이러한 하강과 상승의 움직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성찬은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게 해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에 맞서, 예수님의 교리 교육은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세상의 생명을 위해 바쳐진 그분의 살과 피로 정의되는 그 양식과 음료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5-56).

‘살’이라는 말은, 강생과 십자가와 성찬례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 안에서 신자들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제물로 바쳐진 희생양(살과 피)으로서, 보편적 구원의 은총으로서, 믿는 이들에게 드러나십니다.

3.2. 주님의 만찬에서 교회의 성찬례까지

교부 시대에 성찬례가 어떻게 거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¹²⁾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115년 선종)는 성찬례에 대해 여러 번 암시했지만, 예식 거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찬례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는 첫 번째 문서는 아마도 「열두 사도의 가르침」(*Didaché*)일 것입니다. 이 「열두 사도의 가르침」에는 성찬례와 관련된 3개의 기도와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는 성찬례 만찬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¹³⁾ 112년경, 비티니아(Bitinia)와 폰토(Ponto)의 로마 총독이었던 플리니오(Plinio il Giovane)의 증언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총독은 트라야누스(Traiano) 황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상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모이고, 교송으로 그리스도께 찬양 노래를 부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온당한 공동의 음식을 얻으려고 흩어지거나 모이는 관

12) J. A. Jungmann, *Missarum Sollemnia*, Casale, 1953, 20면 이하.

13) 「열두 사도의 가르침」(*Didaché*), 9-10장과 14-15장, 『그리스도교 원전』(*Sources Chrétiennes*), 248(제2판) 참조.

습이 있다.”¹⁴⁾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60년경, 성찬 행위의 실체는 유스티노의 첫 번째 호교론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찬례를 거행하는 모임인 세례 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 모임에서 그들은 평화의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빵과 포도주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의 아드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간청의 긴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기도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가져다주고자 빵의 일부를 남겨 두고, 예물 축성과 영성체가 이어집니다. 그다음 유스티노는 성찬례 교리의 핵심을 간추려 제시하고, “태양의 날”¹⁵⁾에 거행되는 성찬 행위를 설명합니다. 성찬 전례의 형성은 3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히폴리토의 교회 체계에서 이미 발견되는데,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 성찬 기념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찬양하는 기도도 발견됩니다.¹⁶⁾

고대 후기와 중세 초기에, 성찬례 거행과 참여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예식 형태가 질서 있게 발전해 온 것에 놀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동방 고대 교회들의 예식에서 아직 빛나고 있는 초세기의 다양한 예식 형태에서 로마 예식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트리엔트 공의회와 성 비오 5세 교황의 『미사 전례서』에서 내린 분명한 지침에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요청한 전례 쇄신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 거행은 풍요롭고 다양한 전례 예식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¹⁷⁾

3.3. 중세의 종합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천사 박사”¹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의 모든 교역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신다.”¹⁹⁾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 대전』(*La Somma Teologica*)을 통하여 중세 시대의 성체에 관한 교리의 종합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에 이어지는 성체에 관한 가르침에서 핵심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성인은 두 가지 관점을 강조합니다.²⁰⁾ 무엇보다도 성체성사는 가장 중요한 성사라고 밝힙니다. 다른 성사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은총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성체성사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현존하시기 때문

14) C. Plini Caecili Secundi, *Epistularum libri decem*, Oxford, 1963, X, 96.

15) 유스티노, 「호교론」(*Apologia*), I, 65.67, 『그리스도교 원전』, 597.

16) 히폴리토, 「사도 전승」(*Traditio Apostolica*), 4, 『그리스도교 원전』, 11(제2판).

17) 베네딕토 16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 2007.2.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1판), 3항.

18) 1567년 성 비오 5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비오 11세는 회칙 *Studiorum Ducem*(AAS XV, 1923, 309-326)에서 그를 “위대한 성찬례의 전령이며 선지자”라고 규정하였다.

1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12.7., 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3판), 571면.

20)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La Somma Teologica*), Bologna, 2014, III, q.65, a.3, vol. IV, 781면 참조.

입니다.

토마스 성인도 또한 다른 성사들이 성사 생활의 최종 목적인 성체성사를 향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성품성사는 성체성사를 현존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례성사와 또 부분적으로 견진성사는 성체성사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죄를 용서해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합당하게 받아 모실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교를 드러내 주는 표징인 혼인성사에서 성찬례의 거행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또 그들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를 견고하게 합니다.

성찬례 거행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 제사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가 재현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미사는, 본성상 성체성사를 지향하는 다른 성사들도 집행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²¹⁾

3.4. 종교 개혁과 트리엔트 공의회

“오, 거룩한 잔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며, 그분의 수난을 기념하고 은총으로 충만되며, 후세 영광의 보증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제2 저녁기도 응송에서, 교회의 전례는 성체의 기적에 대해 끊임없이 찬미하며, 이 성사의 본질에 대한 가톨릭 신앙을 요약해 줍니다.²²⁾

성체성사에는 다른 성사들처럼 은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은총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업과 구원의 희생 제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체성사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²³⁾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체성사에 대해 총체적이며 완벽하게 다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응하고 신비의 온전성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²⁴⁾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재적인 현존에 관하여 공의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축복받은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서, 참하느님이시며 참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축성 이후 감지할 수 있는 실재들의 형상 안에,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계신다.”²⁵⁾ 이러한 영구적이고 실재적인 현존은 실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을 통해서 빵의 온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포도주의 온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실제 변화라고 언명한다.”²⁶⁾

최근에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사용한 ‘실체 변화’(transustanziazione)라는 용어 대신에 ‘의미 변화’(transignificazione)와 ‘목적 변화’(transfinalizzazione)라는 용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재적이고 신비로운 변화를 함께 설명하고자, 오늘날 문화에 더욱 적합한 다

21) 『신학 대전』, III, q.79, a.1, vol. IV, 1007면 참조.

2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2004.10.17., 29항, 『성체성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제2판), 27-28면 참조.

23) “성체성사는 ‘유익한 제병’ 곧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기에 제병이라고 불린다.” 『신학 대전』, III, q.73, a.4, ad.3, vol. IV, 912면.

24) 하인리히 덴칭거,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Echiridion Symbolorum*), 페터 휘너만 편집, Bologna, 2009, 17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제1판) 참조.

25)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1636.

26)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1652.

른 용어들이 제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용어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실체 변화’라는 말의 한계와 철학 용어의 잠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²⁷⁾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사적 성격에 대해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분께서는 …… 잡히시던 날 밤에(1코린 11,23) 최후 만찬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듯이) 가시적인 제사를 남겨 주셨다. 그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의 단 한 번 바쳐져야 했던 피의 제사가 재현되고, 그것에 대한 기념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그 구원적 효과는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의 용서에 적용될 것이었다. …… 그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셨다.”²⁸⁾

그러므로 거룩한 미사는 새로운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히브 10,12 참조). 거룩한 미사가 새로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가 유효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미사는 “재현”(ripresentazione)입니다. 미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의 영원한 현재에 머물게 해 줍니다. 따라서 거룩한 미사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성사적 행위와 우리 자신의 봉헌 가능성입니다.²⁹⁾ 중세의 논거들을 본질적으로 다시 제시하는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위대한 교부 전승의 특징인 ‘일치의 표징으로서의 성찬례’에 대한 주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도덕적 관점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부성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명부에 오른 각 사람과 모든 이는 이 ‘일치의 표징’과 ‘사랑의 유대’와 그리고 화합의 이러한 상징 안에서 마침내 만나 일치를 이루고 화합하기를 요청하고 간청하는 바이다.”³⁰⁾

27) C. Giraud, *In Unum Corpus*, Cinisello Balsamo, 2000, 453면.

28)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1740.

29) C. Journet, *Le Mystère de L'Eucharistie*, Paris, 1980, 33면 참조.

30)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1649.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성찬례

수 세기 동안의 신학적 성찰과 교리교육을 주도하였던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들 이후로, 쇠신의 첫 번째 원동력은 전례 운동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전례 운동은 사목적 요구에서 출발하여, 무엇보다도 성체성사가 그리스도 파스카의 구원 활동의 재현임을 재발견하고 “능동적 참여”의 원칙을 강조하는 데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례 운동은 성경과 교부학과 관련된 운동과 더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인정한 대로 원천들과 전승으로 돌아가자는 맥락 안에서- 성체 교리를 새롭게 종합하는 데에 우호적인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에 관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전례 현장을 비롯한 많은 문서들에서 성체성사를 다루었습니다.

4.1.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찬례 거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례 거행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³¹⁾,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초와 중심”³²⁾, “교회 생활의 원천”³³⁾, “모든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³⁴⁾,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 전체의 중심이 되고 정점이 된다.”³⁵⁾ 성찬례로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얻고 자라난다.”³⁶⁾

성찬례가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이라는 언명은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린 표현으로, 신학의 공동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교회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은 모든 신자의 “보편 사제직”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한다.”³⁷⁾

성체성사는 세례를 통하여 사제직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식’, 곧 교회의 전형이며 교회를 낳은 모태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 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³⁸⁾

3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1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57면.

32) 사제 생활 교령 6항.

3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1964.11.21., 1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359면.

34) 사제 생활 교령 5항.

3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965.10.28., 1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387면.

36) 교회 현장 26항.

37) 교회 현장 11항; 교회 현장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들에도 언급된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963.12.4., 1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7면; 주교 교령 30항;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1965. 12.7., 9항. 39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511면; 일치 교령 15항; 사제 생활 교령 5항. 14항;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1965.11.18., 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471면;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12.7., 3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201면; 참조: R. Falsini, *La liturgia «come culmen et fons»: genesi e sviluppo di un tema conciliare*, AA.VV., *Liturgia e spiritualità*, Roma, 1992, 27-49.

나아가 공의회는 성찬례가 십자가 희생 제사뿐 아니라 파스카 신비 전체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의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³⁹⁾

이러한 까닭에, 성찬례는 하나의 기도나 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파스카 거행입니다. 곧 실재적 현존을 만들어 내거나 가져올 뿐 아니라 파스카 신비 전체의 풍성함을 회복하기 위해 안배된 행위인 것입니다.

공의회는 또 다른 새로움은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있습니다. 전례주년의 주기에 맞게 연결된 말씀 전례는 거행의 필수 요소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⁴⁰⁾

성찬례 거행의 이중 구조 안에서, 말씀 전례는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성찬 전례는 그 역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파스카 안에서 이 구원 역사를 재현합니다. 미사의 전반부는 구원을 선포하고 재현합니다. 미사의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사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온전히 실현합니다. 말씀은 회중에게 성사적 표징으로 이루어진 거행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이 실재는 성령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체 신비에 자주 다가감으로써 교회의 생명이 자라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공경함으로써 교회의 영적 생명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⁴¹⁾

4.2. 성찬례가 교회를 이룹니다

“성찬례가 교회를 이룹니다.” 프랑스 예수회의 앙리 드 뤼박(Henri De Lubac, 1896-1991년) 신부의 이 표현에 따르면, 성찬례는 공의회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적 차원을 지니게 됩니다. 이로써 교부들이 발전시킨 성찬례 원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찬례 거행은, 빵과 포도주가 변화하는 은총을 입어 교회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는 역동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교 회중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 교회의 몸이 되도록 초대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현장은 성찬례에 기초한 교회의 이러한 친교적 차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38) 사제 생활 교령 5항.

39) 전례 헌장 47항 수정 번역.

40) 전례 헌장 7항. 이 항에서는 [전례] 거행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여러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중세의 성체 신심과 대조해 볼 때 더욱 새로운 공의회 언명을 제시한다.

4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1965.11.18., 2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77면.

공의회 문서를 간략히 보기만 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언명들을 맨 처음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빵을 나누는 성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⁴²⁾ 바오로 서간인 코린토 1서 10장 17절이 여기에서 직접 인용됩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조금 뒤에 되풀이됩니다. “성찬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실제로 주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사이에 친교를 이루도록 들어 높여진다. ‘빵은 하나이고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러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이다’(1코린 10,17). 이렇게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가 되며(1코린 12,27 참조), ‘각각 서로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다’(로마 12,5).”⁴³⁾ 성찬례는 교회의 일치를 가리킬 뿐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실현합니다. “거룩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이 지존한 성사로 적절히 드러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여준다.”⁴⁴⁾

그런데 주교의 직분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성찬 교회론이 개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평가로 이끌었음을 밝힌 다음 이렇게 확인합니다. “주교의 거룩한 직무 아래에 있는 어떠한 제단의 공동체에서든 신비체의 저 사랑과 일치와 상징이 드러난다. ‘신비체의 일치가 없으면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이 공동체들이 가끔 작고 가난하거나 흩어져 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그분의 힘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가 이루어진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⁴⁵⁾

공의회 이후, 1985년 개최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 총회에서 친교의 성찬 교회론이 다시 한번 제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친교의 교회를 중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친교의 교회론은 공의회 문헌들의 중심 개념이고 기본 개념입니다. …… 근본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사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례성사는 교회 안에 있는 친교의 문이며 그 토대입니다. 성체성사는 모든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친교는 모든 신자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는 친밀한 친교를 의미하고 또 그러한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⁴⁶⁾

이러한 까닭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성체성사는 교회의 기원 자체에 영향을 미친 원인입니다”⁴⁷⁾ 하고 단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42) 교회 헌장 3항.

43) 교회 헌장 7항.

44) 교회 헌장 11항.

45) 교회 헌장 26항.

46)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임시 총회, 최종 보고서, II. 다.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35호, 6면, 『바티칸 편람』(Enchiridion Vaticanum) IX, 볼로냐 1987, 1761면 수정 번역.

47)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2003.4.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판(2011), 21항.

5.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 거행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Ordinamento Generale del Messale Romano*)에서는 성찬례 거행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오직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이렇게 미사에서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 몸의 식탁이 마련되어 신자들은 가르침과 양식을 얻는다. 그리고 미사에는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있다.”⁴⁸⁾

미사는 이중의 식탁으로 이루어집니다.⁴⁹⁾ 그 이중의 식탁은, 거행 전체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작은 예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이 신앙의 풍부하고도 오랜 전통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증진한 전례 개혁은,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불타 몸과 마음으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신앙 전통을 신중하게 숙고해 왔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참여를 바라고 있고, 거행의 본성 자체가 이를 요구”⁵⁰⁾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님의 명령(“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을 충실하게 거행하는 전례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시고 그분의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맡기신 복음화 사업의 항구하고 살아 있는 열매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에 대해 요약하며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사도 2,42.46-47 참조).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하는 증언에서 이를 되새겨 줍니다(1코린 11,23 참조). 루카 복음사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안에서 이를 보여 줍니다(루카 24,13-35 참조).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파스카 체험이 주일 성찬 전례의 특징들과 더불어 제시됩니다.

전례 거행의 행위 안에는 그리스도의 파스카와 함께 그분의 다시 오심이 선포됩니다. 또한 생명과 신앙과 사명의 원천, 친교의 공동체적이고 대중적인 학교, 복음화의 힘찬 원동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보화들의 발견을 위해, 신비교육의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성찬례 거행 예식의 여정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⁵¹⁾

5.1.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인 성찬례 거행

가. 시작 예식

“백성이 모인 다음.”⁵²⁾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의 이 말은 성찬 거행의 구성 요소를 이해

48)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Institutio Generale Missalis Roman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제3판), 28항. 여러 동방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들도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를 따르고 있는 한편, 세부적으로는 풍요로운 다양성이 그들 사이에 드러난다.

49) 전례 현장 44항. “교회는 두 개의 식탁,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50)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8항.

5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75항 참조. “전례를 통한 교리교육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징에서 상징된 내용으로, ‘성사’에서 ‘신비’로 진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이것이 신비교육(*μυσταγωγία*)이다].”; 참조: C. Giraud, *In unum corpus...cit.*; P. De Clerck, *La celebration eucharistique. Son sens et sa dynamique*, M. Bruard 편, *Eucharistia. Eyclopedie de l'Eucharistie*, Bologna 2004, 379-397면.

52)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7항.

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미사에서 첫째가는 성사적 실재는 하느님 백성인 회중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모임은 그 구체적인 구성이나 개개인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언제나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동기와 또 다른 동기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행을 위해 모인 주체들의 지향과 거행 그 자체의 요구를 중재하는 것이 시작 예식의 임무입니다.

시작 예식(입당송, 십자 성호, 주례자의 인사, 시작 권고, 참회, 대영광송, 본기도)⁵³⁾은 하느님과 그분 백성 또 신자들 사이의 친교를 이루어 주면서,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의 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주례자가 제대에 바치는 공경과 십자 성호는 제대와 회중의 성사적인 특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짧은 양식이나 다른 양식으로 하는 인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현존하심과 한데 모인 교회의 신비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참회 예식의 다양한 양식은 하느님 또는 그리스도께 죄의 용서를 청원하는 것이며 죄를 꾸짖는 것이라기보다 회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대영광송을 노래한 뒤에 사제는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며 침묵 기도로 초대합니다. 그다음에 사제는 교회의 양식에 맞추어 회중의 기도를 담은 본기도를 바칩니다. 기도 끝에 바치는 “아멘”은 당신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신자들은 시작 예식을 통하여 ‘거룩한 회중’을 이루고 다음과 같이 선포되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에서 새로 났으며,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 마침내 ‘선택된 민족, 왕의 사제들, 거룩한 겨레,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⁵⁴⁾

나. 말씀 전례

그리고 나서 성찬 모임은 말씀의 식탁에 다듭니다. 말씀의 식탁에서 성경의 선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은총의 만남이 됩니다.⁵⁵⁾ 전례 회중 안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동안, 진행 중인 예식은 구원 역사의 논리 안으로 들어가고 하느님 계시의 교회 체험이 이루어지며, 유일한 참 스승이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말씀 전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종합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독서집의 거행 순서에 따라, “성경의 보고를 더 활짝 열어, 일정한 햇수 안에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백성에게 봉독”되도록 했습니다.⁵⁶⁾ 성경의 전례적 사용에 근거하여, 위대한 교부들은 구약 안에 신약의 예형이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완전히 드러남을 직관했습니다.

53)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6항: “이 예식들의 목적은 한데 모인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합당하게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에 있다.”

54) 교회 헌장 9항.

55)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5항: “독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이시며 영적 양식을 주신다. 강론은 봉독한 말씀을 해설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신다. 하느님 백성은 침묵과 노래로 이 거룩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한 신앙 고백으로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한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양식을 얻은 백성은 보편 지향 기도로 세계 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56) 전례 헌장 51항.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 선포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오랜 역사 안에서 나누시는 구원의 대화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례 행위 안에 현존하시기에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 계시의 이러한 성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말씀에 관한 지식과 연구는 우리가 성찬례를 더 잘 이해하고 거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⁵⁷⁾

강론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포는 말씀의 경청이 말씀의 수용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향한 열린 마음이 무르익게 해 주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게 도와줍니다.⁵⁸⁾ 강론의 목적은 신자들이 거행하러 온 그 신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 전례는, 교우들이 그들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세례 때 받은 사제직”⁵⁹⁾을 수행하는 보편 지향 기도로 끝납니다.

다. 성찬 전례

말씀 전례에서 성찬 전례로의 이행은 말씀과 성사의 상호 통합을 복돋우며, 말씀은 성사의 준비이고 성사는 말씀의 효과적인 실행임을 신자들이 인식하게 해 줍니다.

성찬 전례의 거행 구조(예물-감사 기도-영성체)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행위들을 전례 예식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물 봉헌 예식은 모든 피조물의 선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이 땅을 일구어 얻은’ 결실은 주님의 몸과 피의 성사가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온갖 복의 원천이 됩니다. 피조물을 바라보는 눈은, 빵과 포도주의 봉헌을 통하여 “일용할”(èpiousios: 마태 6.11) 양식과 천상 양식이 마련된다는 것을 깨달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전례 예식 전체의 핵심인 감사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두 측면, 곧 기념(아남네시스: anamnesis)과 성령 청원(에피클레시스: Epiclesis)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남네시스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여 이루신 업적들을 거행하는 기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감사 기도는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말씀과 업적에 대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지울 수 없는 계약의 표지”⁶⁰⁾인 파스카를 기억하는 데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에피클레시스, 곧 성사를 실현하는 성령 청원은 무엇보다도 간구 기도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⁶¹⁾(첫 번째 에피클레시스). 성령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그리하여 “……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받으려는 저희가 모두

57) 「사랑의 성사」, 45항.

58) C. M. Martini, *Sia pace sulle tue mura*, Bologna, 1984, 128-129면 참조.

59)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9항.

60) 화해 감사 기도 제1양식.

61) 감사 기도 제2양식.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⁶²⁾(두 번째 에피클레시스) 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성찬례를 거행하며 교회 자신과 세상에 주 예수님의 성사적 몸을 나누어주어, 우리가 모두 같은 빵 안에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감사 기도는 거행이 이러한 교회적 결실을 맺도록 이끕니다. 거룩한 미사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믿음의 형제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감사 기도에 동참하며 주님께 찬미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부의 구원 활동에 대하여, 특히 외아드님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머리에서 지체까지 온 교회가 하느님을 향하는 은총의 행위 안에서, 미사 참례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요한 13,1)하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미사 참례자들은 성찬례 때마다 그분과 함께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⁶³⁾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는 파스카 신비로 드러나는 복음의 생생한 핵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라. 영성체 예식

감사 기도를 마치면 주님의 기도, 평화 예식, 빵 나눔, 그리고 미사의 정점인 영성체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자매들에게 참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들을 당신 파스카의 “건너감”에 참여시키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양분을 주시고 삼위일체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체 교리 교육에 따르면, 성체성사는 여정을 위한 빵, 곧 모든 생활 신분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성찬 행위는 양식이 되어 주시는 분의 성체 현존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 삶의 논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체성사는 당신을 내어 주시는 주님을 받아 모시는 행위가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필리 2,6)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해 줍니다. 같은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기 위한 공동 영성체 행렬, 교회의 동일한 신앙을 개인적으로 증언하는 아멘, 공동으로 바치는 감사의 노래와 침묵, 이 모든 것이 믿는 이들의 삶을 위한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곧,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인간다운 형제애를 건설하려는 열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 마침 예식

삶과 사명으로 파견하면서 미사가 끝납니다. 영성체 후 기도는 성찬례 거행으로 맺은 결실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인류의 새로운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마침 강복은 미사 거행을 통해 체험한 풍성한 하느님 은총들을 한데 모아서, 세상에 증언

62) 감사 기도 제4양식.

63) 감사 기도 제4양식.

하는 데에 필요한 노자로 삼습니다. 파견(“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은 미사에 참여한 이들이 미사 거행 중에 받은 은총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받은 성령을 이 세상 현실 안에 머무르시게 하라는 초대이며 위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Concéde nobis, omnípotens Deus, ut de percéptis sacraméntis inebriémur atque pascámur, quátenus in id quod súmimus transeámus).”⁶⁴⁾

5.2. 미사 밖에서 하는 성체 공경

교회는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De Sacra Comunione et de Cultu Mysteriorum Eucharistici extra Missam*)⁶⁵⁾이라는 제목의 고유 예식서로 미사 밖에서 하는 성체 공경을 규정합니다. 이 예식서는 한편으로, 바오로 6세께서 훈령 「성체의 신비」(*Eucharisticum Mysteriorum*)로 발표하신 규범을 전례로 옮긴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성체성사에 관한 관점을 참고하여 성체 공경 예식의 순서를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식서를 구성하는 ‘제1장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 ‘제2장 병자 영성체와 노자 성체’, ‘제3장 성체 공경의 여러 양식’, 이 세 장의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다양한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응답으로 성체 조배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준거입니다.

전통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축성된 제병을 보존하는 근본 목적이 성찬례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성체를 모셔 가고 특히 병자들에게는 노자 성체 형태로 모셔 가는 데에 있다면, 성체 공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미사성제에서 거행되는 성체 성사는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의 참된 원천이며 목적이다.”⁶⁶⁾ 그러므로, 성찬례 거행은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사와 이루는 관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드리는 예배가 분명히 드러나도록”⁶⁷⁾ 유의하여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되새겨 주셨습니다. “미사 밖에서 드리는 성체 조배는 미사 전례 거행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연장하고 강화합니다. 분명히 성체 조배를 통해서만 영성체가 심오하고 참되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주님과 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주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있는 벽뿐 아니라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는 벽까지도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성찬례의 사회적 사명이 성숙해집니다.”⁶⁸⁾

성찬례 거행과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을 결합시키는 본질적인 기본 원칙은 무엇보다도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을 위한 공간 좌표, 곧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성체 공경을 성찬례 거행에 결합시키는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우리의 음식과 영약과 위안이 되시려고 성체성사를 세우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원의를 조금이라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⁶⁹⁾ 이러

64) 연중 제27주일 영성체 후 기도, 《로마 미사 경본》, 『로마 미사 경본』.

65) 경신성성,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 1973.6.21.,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성체 신비 공경 예식」(*De Sacra Comunione et de Cultu Mysteriorum Eucharistici extra Missam*) [Ritunle], 『바티칸 편람』 IV, 1624-1659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4호(2011), 300면.

66)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항.

67)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82항.

68) 「사랑의 성사」, 66항.

한 까닭에, “성합이나 성광을 제단 위에 그대로 놓아둔다.”⁷⁰⁾는 점을 명시하면서 성체 조배의 자리는 거행이 이루어지는 제단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사 밖에서 하는 성체 공경은 대개 말씀과 빵의 식사가 늘 반복되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찬례 거행과 미사 밖에서 하는 성체 공경 사이의 관계는, 주님의 “실재적 현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에 이루어진 신학적 재발견으로 분명해졌거나 상당히 풍요로워진 이러한 신비의 또 다른 차원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지 않다가 현존하시게 되는 건너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희생제사의 기념으로 한층 나아가는 건너감입니다. 이 건너감을 통해 우리는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가 당신 피로 세우신 새 계약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바로 그분과 이루는 일치로 들어가는”⁷¹⁾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체 공경은, 교회가 유래된 주님 파스카의 기념제, 곧 성찬 신비의 객관적 실재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찬이 먹고 동화를 이루어야 하는 똑같은 빵이고 서로를 비추는 똑같은 신비의 두 모습이라면, 성체 공경을 거행할 때 하느님 말씀의 일부 구절, 적어도 그날의 미사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체성사의 특별한 은총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에, 성체 공경 또한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내면에만 치우친 여정을 뛰어넘는 공동체 차원을 포함합니다.⁷²⁾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성체 신심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에 치우친 성체 신학에 기초하여 발전된 것입니다.⁷³⁾ 이제, “성체성사 거행은 모든 다양한 신심 형태와 표현(Manifestazione)의 중심이며 정점이기 때문에……,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 「사랑의 성사」가 권고하고 장려하는 모든 성체 신심은 친교를 지향하는 성찬 교회론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⁷⁴⁾

공동체의 성체 조배 소명에는 봉헌생활자들, 개별 신자, 젊은이들이 개인적으로 바치는 조배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제대의 성사 앞에서 개인 기도를 드리며 하루의 일부를 보냅니다. 이들은 침묵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 아래 머무르며, 쪼개진 빵의 표징 안에 계시는 그분 현존을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일은 자발적인 찬미와 감사,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일치하고자 하는 원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불러일으킵니다.⁷⁵⁾ 그러므로 성체 앞에 머무르며 바치는 기도를 통하여, 복잡한 현대 세계 안에서 기꺼이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겠다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고결한 책임이 성숙됩니다.

69)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82항.

70) 예부성성, 훈령 「성체의 신비」(*Eucharisticum Mysterium*), 1967.5.25., 62항, 『바티칸 편람』, II, 1149면.

71) L. Grnardi, «Del vedere LOstia». *La visione come forma di partecipazione*, Rivista Liturgica 87 (2000), 445면.

72) Cf. D. Michler, *l'adorazione eucaristica. Riflessione teologica e progetto pastorale*, San Paolo, Cinesello Balsamo, 2003, 58면 이하.

73) W. Kasper, *Ecclesiology eucharistique: de Vatican II à l'exhortation Sacramentum Caritatis: in I.:Eucharistie don de Dieu pour la vie du monde. Actes du Symposium international de theologie. Congres eucharistique, Quebec, Canada, 11-13 juin 2008*; CECC, Ottawa, 2009, 211면.

74)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세계성체대회위원회 총회에서 하신 연설(*Ad Plenariam Sessionem Pontificii Comitatus Euchnrilicis Internationalibus Conventibus provehendis*), AAS 102(2010), 900-902면.

75) J. M. Canals, *Prier devant l'Hucharistie*, M. Brouard (편), *Eucharistia, Encyclopédie de l'Eucharistie*, Paris, 2002, 639-646면.

6. 피조물 변모의 원천인 성체성사

6.1. 성체성사의 우주적 의미

성체성사의 신비는 모든 신앙의 신비의 중심이며 종합입니다. 예수님의 파스카 희생제사, 곧 그분의 복된 수난, 구원을 가져다준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의 파스카 희생제사가 성찬의 신비 안에 집약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 사건이 실현되고 온 우주로 뻗어 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에페 1,7-10).

성체성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주적 차원을 지닙니다. 그 보편적 효과는 교회, 인류, 산 이와 죽은 이를 넘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이러한 우주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입니다(콜로 1,15-17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인간 생명과 피조물의 궁극적 의미를 밝히시어 그 완성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의 확실한 토대, 곧 우주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묵시 21,5 참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 참여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도 신비롭게 부름받은 완전한 변모의 시작입니다.

6.2. 세상의 제대 위에서 드리는 미사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성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며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는 또한 인간과 천사와 온 우주가 드리는 영예와 영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제는 감사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다.”⁷⁶⁾ 그리고 온 우주가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가인 거룩하시도다(Sanctus)를 노래하게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희도 그들(천사들)과 함께 하늘 아래 모든 조물과 더불어 기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나다.” 그런 다음, 사제는 감사 기도를 마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인 저희가 ……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주신 피조물과 함께 ……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⁷⁷⁾

76) 감사 기도 제3양식.

77) 감사 기도 제4양식.

성찬례 거행의 우주적 차원은 모든 피조물의 희망을 키워 줍니다. “성찬례는 시골 성당의 초라한 제대에서 거행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되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킵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그 속에 충만히 스며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단 한 번의 숭고한 찬양 행위로,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께 되돌려 드리하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성혈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그리하여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십니다.”⁷⁸⁾

그리스도의 파스카로 새롭게 된 창조와 성체성사 사이의 관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주간 첫날 모였다는 데서 잘 표현됩니다. 주간 첫날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고, 부활하신 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날”의 성찬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축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주간 첫날은 바로 창조의 칠일 가운데 첫날도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맨 처음부터 성찬례를 통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어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축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 새 창조의 말배는 주님의 부활하신 인성으로 피조 세계 전체의 결정적 변모에 대한 약속입니다.”⁷⁹⁾

이러한 까닭에, 주일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구원을 가져다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6.3. 성찬례와 피조물의 변모

성찬례는 우주의 전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들어 높이고 변모시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창조된 선물인 빵과 포도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현존의 성사가 될 때 존재의 윗자리로 드높여집니다. “놀라운 교환”이 실현됩니다. ‘인간이 땅을 일구어 얻은’ 결실을 우리가 제대 위에 바치면 감사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성찬례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높여집니다. …… 주님께서서는 강생의 신비의 정점에서 작은 물질을 통하여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닿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위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 성찬례 안에 현존하시는 강생하신 아드님과 하나 되어 온 세상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성찬례는 그 자체로 우주적 사랑의 행위입니다. ……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이어 줍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품고 그 안에 스며듭니다. 하느님의 손에서 나온 세상이 복되고 온전한 경신례로 하느님께 되돌아갑니다.”⁸⁰⁾

78)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8항 참조. 이러한 논점을 분명히 지향하는 저자로는 예수회의 떼이아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이 있다. 중국 오르도스 사막에서 쓴 그의 저서 「세계 위에서 드리는 미사」(*The Mass on the World*)(1923)에서, 그는 변모의 날을 기억한다. 빵과 포도주가 없음을 알고서 그는 하느님께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봉헌한다. “다시 한번 빵도, 포도주도, 제대도 없기에 저는 실재의 온전한 주님께 상징들을 뛰어넘어 저 자신을 들어 높여, 당신의 사제로서 온 땅의 제대 위에서 세상의 노고와 고난을 봉헌하나다”(9-23).

79)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5.24., 237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판(2015).

성체성사의 “변화”는 모든 피조물이 지향하는 결정적이고 위대한 변모의 시작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함으로써, …… 일종의 ‘핵분열’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원리가 창조 안에 도입됩니다. 이 변화는 …… 실재를 변화시키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까지(1코린 15,28 참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합니다.”⁸¹⁾

요약하자면, 모든 미사성제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며, 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육신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질 위대한 변모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의 핵심인 성찬례는 부활과 우주의 궁극적 변모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또한 성찬례는 피조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책임을 이끌어내는 원천입니다.

80) 「찬미받으소서」, 236항.

81) 「사랑의 성사」, 11항.

7. 성찬례, 성덕의 원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로마 12,4 참조).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로마 12,6)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각 지체는 개인의 생활방식에 따라 고유한 그리스도교 소명을 실현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든 사람은 온갖 생활과 직무에서 하나의 성덕을 닦고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생활 신분에 맞게 완덕에 이르는 성화의 여러 수단과 방법 가운데에서도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⁸²⁾

7.1. 20세기 헝가리 순교자들의 모범

감사 기도에서 우리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신 거룩하신 아버지’⁸³⁾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⁸⁴⁾ 우주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찬례를 통하여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에페 4,1 참조).

20세기의 많은 헝가리 순교자들과 성인들은 성찬례에서 힘을 얻고 또 당신 생명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1)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헝가리 교회 역사를 밝혀 준 그들의 모범 가운데 일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⁸⁵⁾

독재 정권이 사제들의 생사를 불모로 잡고 교회를 위협하려 했을 때, 그 사제들 가운데 야노스 브렌너(János Brenner, 1931-1957년) 복자도 있었습니다.⁸⁶⁾ 야노스 신부는 1957년 12월 14일 밤에 임종을 앞둔 병자를 방문하러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서 비밀경찰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였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야노스 브렌너 신부를, 성체를 옮기다가 순교한 타르치시오 성인에 비유하여 헝가리의 타르치시오 성인으로 여기며 공경하고 있습니다. 야노스 신부는 성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자들과 교구 사제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공산 독재 정권이 폐쇄시켜 버린 시토 수도회의 ‘비밀’ 회원이었습니다.

기요르 교구장 빌모스 아포르(Vilmos Apor, 1892-1945년) 복자도 깊은 성체 영성 덕분에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주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에서 샘솟는 생생한 사랑이 없으면 미사성제에 참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 점령 시기에 빌모스 아포르 주교는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박해받는 이들을 보호하

82) 교회 헌장 41.42항.

83) 감사 기도 제2양식 참조.

84) 감사 기도 제3양식.

85) 예를 들어, 실라르드 보그단피(Szilárd Bogdánffy) 복자, 야노시 쉘플러(János Scheffler) 복자, 졸탄 메슬레니(Zoltán Meszlényi) 복자, 페테르 팔 고이디스(Péter Pál Gojdic) 복자, 이슈트반 산도르(István Sándor) 복자, 그리고 프란치스코회 순교자 7명이 있다.

86) Császár, István - Soós, Viktor Attila, *Magyar Tarzícius. Brenner János élete és vértanúsága 1931-1957 [Il Tarzício ungherese. La vita e il martirio di János Brenner, 1931-1957]*, Szombathely 2003, 49-51면.

였습니다. 1945년 성목요일에 빌모스 아포르 주교는 사제들과 신자들과 함께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성금요일에 주교관 지하실에 피신해 있던 여자들을 지키려다 소련군에게 총살당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자인 수도자 샬러 설커하지(Sára Salkaházi, 1899-1944년) 복자도 성체 영성에서 순교를 위한 힘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성체성사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⁸⁷⁾ 사회 봉사 수녀회(Suore del Servizio Sociale)의 사도생활단 안에서, 샬러 설커하지 수녀는 국가사회주의의 확산이 초래한 비인간적 결과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수도 공동체가 은신처를 제공한 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백여 명이 바로 샬러 수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미사에서 이 투쟁에 필요한 힘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샬러 수녀는 1944년 12월 27일 헝가리 파시스트 정당의 당원들에게 붙잡혀 총살당하였고 그 시신은 다뉴브 강에 던져졌습니다.

에스테르곰 대교구장, 하느님의 종 요제프 민드센치(József Mindszenty, 1892-1975년) 추기경은 용기 있게 무신론 정권에 대항하는 입장을 밝히고 담대하게 교회의 권리들과 인권을 수호하였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 인민재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요제프 추기경은 8년의 옥살이 동안 날마다 미사성체를 드리고 감옥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충실한 믿음과 용서의 원천, 화해의 영성, 수감 생활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글로 남겼습니다. “저는 노심 초사하며 성체를 간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교도소의 제 방을 수색하여 성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바츠(Vác)에서 산보할 때에도 계속 성체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영성체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주 어두운 밤에 제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흠송하며 성체 조배를 하였습니다. 성체를 만질 때에는 성체를 천으로 덮고 만졌습니다. 교도소 방에 갇혀 있던 저 같은 수인에게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습니까!”⁸⁸⁾

트라스카르퍼지아(Trascarpazia)의 그리스 가톨릭 교회 주교 테오도르 롬저(Teodor Romzsa, 1911-1947년)⁸⁹⁾ 복자는 스탈린의 명령으로 비밀경찰에 의해 살해당하였습니다. 성체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로서 그의 마지막 행적은 성당 봉헌 예식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서 독살당하였습니다.

비밀리에 성품을 받은 그리스 가톨릭 교회의 페테르 오로스(Péter Orosz, 1917-1953년)⁹⁰⁾ 주교는 이미 신학생 때부터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사랑으로 칭송받았고, 주교가 되어서도 한결같았습니다. 페테르 주교는 병자 영성체를 주러 가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길가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총살당했습니다.

87) D. István 편, *Boldog Salkaházi Sára. Emlékkönyv* [*Beata Sára Salkaházi. Libro memoriale*], Budapest 2006.

88) J. Mindszenty, *Emlékirataim* [*Memorie*], Budapest 2015, 395-396.

89) L. Puskás, *Megalkuvás nélkül - Boldog Romzsa Tódor élete és vértanúhalála* [*Senza compromessi. La vita e il martirio di Beato Tódor Romzsa*], Budapest, 2005.

90) L. Puskás, *Ilyeneké Isten országa. Isten Szolgája Orosz Péter (1917-1953) titokban felszentelt püspök élete és vértanúsága* [*Di questi è il regno dei cieli. Vita e martirio del vescovo segretamente ordinato Péter Orosz (1917-1953)*], Nyíregyháza, 2010.

7.2. 보편적 성화 소명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 전 세계 각지의 모든 연령층과 모든 생활 신분에서 성인들이 나왔습니다. 성인들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국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들입니다. 성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랐으며, 누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믿음 안에서 성숙된 성인들의 삶은 그리스도교의 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곁에 있는 성인들의 현존을 느끼고, 성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며 언젠가 우리도 성인들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굳센 희망을 키웁니다.

우리는 모두 충만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에 대해 매우 강렬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에페 4.7.11-13).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온갖 생활과 직무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의 성덕을 닦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 가난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시가 납니다.”⁹¹⁾ 이 사실이 그리스도교 생활을 참으로 소박하고 위대하며 심오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례 받은 모든 이는 각자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엮어 가시는 성덕이라는 위대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찬례에 참여할 때 자라나고 열매 맺는 좋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성찬례 거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당신 몸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쏟으신 당신 피로 당신 본연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고 모든 신자에게 성소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정점입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이는 그 자신도 (선물로) 변모하여 스스로를 내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 모시는 그분처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⁹²⁾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러한 쇄신의 활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더욱 온전히 수행하시는 것입니다.”⁹³⁾

이러한 까닭에 주일은 중요합니다. 성찬례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지 않고 주일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 전체를 비추는 빛이고 성화의 삶을 위한 원천이 됩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으로써,

91) 교회 헌장 41-42항.

92)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Sermones) 272.1, ‘성령 강림 대축일’, NBA XXXII/2, p.1162.

9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ultate), 2018.3.19., 157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제1판).

그리스도인 삶은 모든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성찬의 모습을 띠입니다.⁹⁴⁾

7.3. 일상생활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제**들은 특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제 영성은 본질적으로 성찬의 성격을 지닙니다. 사제 영성의 씨앗은 이미 서품 예식에서 주교가 선포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봉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본받도록 하십시오.’”⁹⁵⁾

따라서 사제들은 날마다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사제적 친교의 유대를 보존하고 온갖 영적 보화로 풍요로워져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산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하며, 여러 세기를 내려오며 가끔 드러나지 않은 비천한 봉사로 성덕의 뛰어난 표양을 남긴 사제들과 어깨를 겨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가 그들을 찬미하고 있습니다.”⁹⁶⁾

사제들이 자기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께 “영적 제물”(1베드 2,5)을 바칠 수 있도록, 사제들에게는 ‘신앙의 신비’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 거행과 성체 신심을 통한 성체 공경은 “마치 생명의 물줄기와도 같이, 직무 사제직을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연결시키고 그 직무의 핵심 가치를 수직 차원에서 제시합니다.”⁹⁷⁾

복음 권고들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이란 교회 안에서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봉헌 생활자는 정결과 가난과 순명의 서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합니다. 수도자들은 미사 때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마다 이 응답을 새롭게 합니다.⁹⁸⁾ 성찬례 거행과 영성체와 성체 조배가 날마다 쇄신해야 하는 자기 봉헌의 원천으로 봉헌 생활의 핵심에 자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⁹⁹⁾

특히 **가정**들이 성체성사에서 영감과 힘을 얻으라고 격려합니다. “남녀의 사랑, 생명에 열린 자세, 그리고 자녀 양육은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그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성찬례 고유의 힘이 드러나는 탁월한 분야들입니다.”¹⁰⁰⁾ 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희생 제사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신들의 혼인 계약이 흘러나오고 그 계약을 내적으로 조직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근원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처럼, 성체는 사랑의 샘입니다.”¹⁰¹⁾

94) 「사랑의 성사」, 76-77항 참조.

95) 「사랑의 성사」, 80항.

96) 교회 헌장 41항.

97) 요한 바오로 2세, 서한 「주님의 만찬」(*Dominicae Cenaе*), 1980.2.24., 2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37호(200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42면.

98) 「사랑의 성사」, 81항 참조.

99)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봉헌 생활」(*Vita Consecrata*), 1996.3.25., 95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제1판), 130-131면 참조.

100) 「사랑의 성사」, 79항.

101)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11.22., 57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3판) 80면.

세상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좋은 씨로 뿌리신 밭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세례 받은 모든 **평신도**는 성찬례에서 힘을 얻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새로움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언제나 더 깊이 아로새겨져, 평신도가 자신의 일터와 사회 전체 안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이끕니다.

바로 이것이 11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헝가리 의사였던 라슬로 버치야니-스트러트먼(László Battyány-Strattmann, 1870-1931년) 복자가 한 증언입니다. 그는 안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키우고자 애썼습니다. 이 의사는 날마다 영성체를 하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면서 성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현실을 새롭게 건설하고 쇄신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그리스도인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엄청난 폭력과 억압을 겪은 이 세상은 일치와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부르심을 무시하는 인간의 문화가 형성된 이후로, 삶에서 부르심을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믿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드높은 이상을 향한 마음과 가슴을 가진 용기 있는 젊은이들만이 삶과 인간관계에 아름다움과 진리를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¹⁰²⁾

이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이자 사랑의 전령이 되기 위한 길은 하느님 말씀과, 모든 믿는 이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과 사명의 핵심인 성찬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교회의 친교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때 이 특별한 역사적 순간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청년 대회가 보여 주듯 성찬례 거행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기꺼이 만나셨습니다(마르 10,13 참조). 가정과 본당의 교리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입문 여정을 마친 어린이들은 첫영성체 미사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거룩한 성체성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어린이들의 사랑을 키우는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성체 안에서 긴밀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소 당신 사랑을 보여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 예수님께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구인 우리를 만나러 오시어,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 언제나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흠 없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과 친절과 좋은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삶이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기쁨의 비결은 선

102) 베네딕토 16세, 제23차 세계 청년 대회 폐막 미사 강론, 2008.7.20., 시드니, AAS 100(2008), 548면.

(善)입니다.”¹⁰³⁾

어린이들은 주일마다 본당에서 제대 봉사를 하고 어린이 성가대(schola cantorum)에서 노래하면서 기쁘게 미사를 거행합니다.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예수님과 그의 이 만남 안에, 그들 사랑의 원천과 점진적으로 신앙을 성숙시키는 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¹⁰⁴⁾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1베드 5,10).¹⁰⁵⁾

교회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병자의 도유를 베풀고 노자 성체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고 부활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54). 이처럼,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불멸의 영약’입니다.¹⁰⁶⁾

교회의 옛 기도는 성체성사를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오, 거룩한 잔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며, 그분의 수난을 기념하고 은총으로 충만되며, 후세 영광의 보증을 받는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파스카 신비로 이 세상을 떠나 성부께 가셨고,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성부 곁에서 장차 누릴 영광을 보증해 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을 닮아, 이 세상의 순례 길에서 늘 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이미 천상 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결합됩니다.”¹⁰⁷⁾

103) 요한 바오로 2세, 어린이 첫영성체 미사 강론,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979.6.16.

104) 『성체의 신비』, 14항.

105) 교회 헌장 41항 참조.

10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24항 참조.

10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19항.

8. 성체성사, 사명과 봉사의 원천

8.1. 성취된 사명의 성사

2003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가 받은 소명이고 은총이며 교회의 본성을 실질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¹⁰⁸⁾ 성체성사는 복음화의 원천인 동시에 복음화가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성체성사는 “성취된 사명의 성사”이고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공동 염원이 실현됩니다. 곧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와 형제적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¹⁰⁹⁾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 받을 권리가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 주는 사람, ‘풍요로운 잔치’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¹¹⁰⁾

“강복 다음에 부제나 사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Ite, missa est)라는 말로 신자들을 파견합니다. 이 말은 이제 막 거행한 미사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¹¹¹⁾

이처럼 성체성사는 교회의 잠재적 복음 선포자들을 배출하는 샘입니다. 성체성사는 “이러한 사명에 필요한 내적 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는 존재 양식으로서, 곧 예수님에게서 개별 그리스도인에게로 전달되고,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사회와 문화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신자 구성원이 개인 묵상과 공동체 묵상을 통하여 성체성사가 표현하는 가치들, 성체성사가 고무하는 자세들, 성체성사가 불러일으키는 결심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¹¹²⁾

생수의 샘에서 물을 마신 사람은(요한 4,14 참조) 다른 이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선교사가 되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요한 4,39 참조).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¹¹³⁾ 지금은 전례 계획에서 벗어나 우리 공동체의 삶으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8.2.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복음적 표상은(루카 24,13-35) 교회와 세례 받은 이들이 지닌 선교적 특성을 잘 보여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부

108) 요한 바오로 2세, 유럽 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유럽 교회」(*Ecclesia in Europa*), 2003.6.28., 45항 수정 번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7호(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0면.

109) 교황청 세계성체대회위원회,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 교회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 *Ponteranica* 2015, 85면.

110)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14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23면 참조.

111) 「사랑의 성사」, 51항.

112)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25항; 이 말씀은 「사랑의 성사」 84항에 그대로 올려 퍼지고 있다. “우리가 성찬 식탁에 나아가면 선교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느님 마음 그 자체에서 시작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노력은 그리스도인 삶의 성찬적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113) 「복음의 기쁨」, 120항.

활하신 분과의 만남이 이 두 제자-순례자를 주님의 열정적인 선포자가 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두 제자가 가던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두 제자는 파스카를 구원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명의 실패이자 그들의 기대가 꺾인 좌절로 체험하면서 깊은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순례자가 그들 곁에 다가옵니다.

복음화의 출발점은 우리보다 앞서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서 그들 가까이 가셨습니다’(루카 24,15 참조). 복음화의 첫걸음은 우리 형제들의 길벗이 되어 그들에게 우리보다 앞서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체험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는 십자 표지를 그으면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루카 24,17 참조). 우리도 주간 리듬에 맞추어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복음화는 교리를 설명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 파스카의 구원 사건에 비추어 삶과 전례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 깊이 관여하는 것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선포하는 임무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의미도 밝혀 주십니다. “말씀과 성찬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찬 사건에서 성사적인 살이 됩니다. 성경이 성찬의 신비를 비추고 설명해 주듯이, 성찬례는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¹¹⁴⁾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언제나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성경 전체에 걸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루카 24,27 참조) 선포하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엠마오에 이르러 부활하신 분께서는 두 제자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묵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어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성찬 전례에서 재연되는 바로 그 몸짓들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빵을 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된 엠마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지만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루카 24,33) 주님을 알아보게 된 그 일을 열한 제자가 모여 있는 공동체에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묵시 1,10)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묵시 7,9)의 사람들이 주교좌성당이나 대성전이나 본당을 향해 갈 때,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 지중해 나라들,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이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도보로 또는 자전거, 지하철, 버스, 자동차로 온 그리스도인들, 수백 수천 명의 세례 받은 이들이 주님의 제대를 중심으로 모인 회중을 이루어, 현대의 도시 한복판에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천여 년 전부터 하느님 백성은 이러한 성체 운동

114) 베네딕토 16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10.9.30., 55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제1판), 107면.

을 하고 있고, 이 성체 운동은 인류가 다시 하느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때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미사가 거행되고 나면, 신자들의 행렬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쁜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땅의 고랑마다 뿌려지는 씨처럼 점점 흩어져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받고 성체성사에서 힘을 얻은 신자들은, 지상 도성의 한복판에서 인간 삶의 드러나지 않은 줄거리를 이루는 새로운 길들을 찾아 나섭니다. 성전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줄기처럼(에제 47,2 참조), 신자들은 광장, 거리, 골목길, 동네, 심지어 가장 먼 변두리 마을에까지 흘러가 땅을 물로 적십니다.

이렇게 하여, 성찬례 거행은 인간 마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형제애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성찬의 만남은 …… 그 제자 안에, 자신이 듣고 체험한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이끌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자는 교회의 파견을 받아 국경 없는 선교로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¹¹⁵⁾

8.3. 성찬례와 형제적 봉사: 교회의 섬김

성찬례 거행은 강복과 파견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성제는 교회 생활의 원천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의 주요 활동 분야 가운데 하나인 섬김(diaconia)의 활동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전례 현장에 따르면, “전례는 신자들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어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도록 촉구하고, 신앙으로 받은 세례성사의 신비를 실천하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인간의 계약이 성찬례에서 새로워져 신자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고 불타오르게 합니다.”¹¹⁶⁾

외아드님의 파스카와 성령의 선물로 드러나고 실현된 하느님 사랑의 모든 신비가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사랑이, 주님과 친교를 이룬 이들의 자세가 되게 해 줍니다. 사랑은 하나의 활동이나 계획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자세를 종합한 것입니다.

파스카 기념제 안에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로 태어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 곧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그 봉헌을 이행하라는 초대가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합니다. 성찬 공동체는 종의 운명을 전하면서 그 자신도 종이 됩니다. “봉헌된 몸”을 모심으로써 성찬 공동체는 “봉헌된 교회의 몸, 다른 이들을 위한 몸, 많은 이를 위해 바친 몸”이 됩니다. 신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면서” 자기 삶도 온전한 봉헌 예물이 되게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에서도 으뜸이 되는 법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이는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밀알 하나와 같습니다(요한 12,24 참조). 자기 자신을 내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계속 입증해 줍니다. 이렇게 성체성

115)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1차 정기 총회, 건의안 최종 목록(*Elenco finale delle proposizioni*), 2005.10.22., 『바티칸 편람』, V. 23, 767면.

116) 전례 현장 10항.

사에서 나오는 복음화의 힘이 이끄는 대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신 그대로 그들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만찬 때의 일이다. ……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5.14).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성찬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다른 이를 위하여 ‘쪼개진 빵’이 되어, 더욱 정의롭고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촉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잘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참으로 예수님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¹¹⁷⁾

가난한 이들, 작은이들,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봉사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우리의 참다운 파스카를 거행합니다. 우리는 미사의 파견 인사 다음에 성당을 떠나며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관념적 이상 없이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을 모시고 세상의 길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 우리 자신이 평범한 밀알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화된 하느님 사랑은 악이나 폭력이나 죽음보다 훨씬 강하다는 굳은 확신을 지켜 나갑니다.”¹¹⁸⁾ 실제로 역사 안에, 성찬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에 봉사하도록 이끌지 않는 성찬례 거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8.4. 성찬례와 세례 받은 이들의 일치: 교회의 친교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Ubi eucharistia, ibi ecclesia). 이것이 성찬 교회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정통 신학뿐만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모든 여정과 여러 가톨릭 신학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잔치의 실현으로서 성찬례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부름받아 한 식탁에 모여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¹¹⁹⁾ 실제로, 성찬례는 개인적 믿음의 징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례는 편파성이나 폐쇄성을 강화하려고 거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울타리를 뛰어넘어 구원 소명의 보편성으로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 거행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서는 다양한 그리스도교파의 모든 세례 받은 이가 주님의 한 식탁에 모여 부활하신 분의 유일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갈라진 탓으로서, 십자가와 성체 신비의 의미에 명백히 위배되는 죄입니다.

최근 수십 년에 걸쳐 발표된 성체성사에 관한 문서들 덕분에, 다양한 교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때는 매우 격렬하게 대립되던 견해 차이가 점점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분열과 대립만 있던 곳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긍정적인 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들을 강조하며 우리는 또한 세계성체대회에 힘입어 더욱 폭넓은 신학적 인식을 얻고

117) 「사랑의 성사」, 88항.

118) 베네딕토 16세, 2011년 주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 2011.6.23., AAS 103(2011), 464면.

119) 이미 「열두 사도의 가르침」에서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상징과 구원의 만찬에 대한 상징을 설명하며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빵 조각들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들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9,4).

신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특히 1982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양 직제 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례, 성찬, 직무」(*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BEM*)에 관한 문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50년 이상의 연구 결실인 이 문서는 다자간 대화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결실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16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은 근본적인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교회 일치적 의견 수렴과 일부 측면에서는 동의를 이끌어 낸 최고 수준의 문서입니다. 그 가운데 성찬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응답에 따르면, “근본 요소들을 질서 있게 배열한 문서 구조는 ……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¹²⁰⁾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희생제사’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갈라진 형제들이 취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기념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도움으로 서로 차이를 좁혀 나갔습니다. “성찬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 곧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성취되었으며 여전히 유효한 그분의 희생제사를 보여 주는, 살아 있고 효과적인 표징이다. 성찬례에 적용되는 성경적 개념의 기념은 하느님 백성이 성찬 전례를 거행할 때 하느님의 활동이 바로 그 자리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일……과 함께 친히 이 기념에 현존하시면서 당신과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다.”¹²¹⁾

그다음, 「세례, 성찬, 직무」는 성찬례 거행 안에서의 ‘실재적 현존’과 ‘그 실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성찬례 제정 때에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가 성찬례 거행의 핵심을 이룬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이며, 그분의 실재적 현존의 성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까지 당신 백성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하신다. 그러나 성찬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 방식은 고유한 것이다. …… 교회는 성찬례 때에 그리스도께서 실재로, 살아서, 능동적으로 현존하신다고 고백한다.”¹²²⁾

성사 교류의 문제는, 표징으로서의 성체성사와 일치의 근원으로서의 성체성사 사이에 긴장과 더불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¹²³⁾ 표징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성찬례는 이미 성취되고 실현된 일치를 표명하고 거행하여야 하므로, 갈라진 형제들을 성찬례에 초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체성사는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성사 구조와 윤리적 요구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성사입니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지닌 일치의 근원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성사 교류는 특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20)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사무국, 신양직제위원회 문서 「세례, 성찬, 직무」에 대한 가톨릭의 응답, 1987, 『교회 일치 문헌』 제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1판), 559면; Max Thurian (ed.), *Le Chiese Rispondono al BEM*, 6 vol., 제네바 1986-1988. 제4권에 가톨릭 교회의 공식 ‘응답’이 실려 있다.

121) 세계교회협의회 신양 직제 위원회, 리마 문서 「세례, 성찬, 직무」(*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BEM*), 1982.1., 『교회 일치 문헌』 제1권, 495면, *Enchiridion Oecumenicum*, vol. I, 볼로냐 1986, 1411면.

122) 「세례, 성찬, 직무」, 『교회 일치 문헌』 제1권, 497면, in *Enchiridion Oecumenicum*, 1413면.

123) 일치 교령 8항: “성사 교류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하여 분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성사 교류는 특히 두 가지 원칙, 곧 교회 일치의 표명과 은총 수단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일치의 표명은 흔히 성사 교류를 금지한다. 은총의 배려는 때때로 성사 교류를 권장한다. 구체적인 교류 방법에 대해서는, 주교회의가 고유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달리 제정하거나 성좌에서 달리 제정하지 않으면, 지역 주교의 권위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8항).

한편, 일치의 여정은 ‘삶의 교회 일치 운동’을 강화하며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삶의 교회 일치 운동은 저마다 십자가의 표징 아래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경 묵상,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 활동, 교회 일치 단체에서 맡은 책임, 다양한 교파들의 지역 공동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과 양성 계획에 대한 협력을 통해 날마다 실천하는 신앙 증언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분야에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교회 일치 행사들, 시간 전례나 교회 일치 순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많은 공동 사업들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자원의 감소로 힘을 모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봉사 분야로는 사회봉사 단체, 노인 지원, 빈곤 가정 방문, 보건의 사목, 매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행으로 결합된 친교의 복음이 행동 방식과 전파 방식을 모색하는 분야들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치를 향한 여정의 핵심인 ‘영성 교회 일치 운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상황들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쁜 소식’을 현재화하면서, 활기가 떨어진 교회에 복음의 박차를 느끼게 해 줍니다. 또한 이들은 복음적이고 교회 일치적인 형태를 공동체로 실천하면서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성 운동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¹²⁴⁾

8.5. 성찬례와 화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네”(시편 87[86],7). 성찬의 샘에 다다른 이들, 필리스티아와 티로와 에티오피아의 주민들(시편 87[86],4 참조)과 모든 민족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곧, 하느님의 도성인 천상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되는 것입니다(필리 3,20 참조).

큰 인류 가족을 삼위일체 친교 안으로 끌어당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신비가 성찬례 안에 현존합니다. “루블레프의 유명한 삼위일체 성화상은 적절한 통찰력으로 성체성사를 명백히 삼위일체 생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¹²⁵⁾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파스카로, 민족들을 갈라놓은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의 적개심을 허무셨으며(에페 2,14 참조), 당신을 받아 모신 이들을 당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바오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1코린 10,17).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 우리가 영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받아 모실 때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형제적 일치에 대한 염원이 충만히 실현되는 동시에, 같은 성찬의 식탁에 동참함으로써 느끼는 형제애가 더욱 고양되어, 단순히 음식을 나눌 때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¹²⁶⁾

124) 이 논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L. Bianchi, *Eucaristia ed ecumenismo. Pasqua di tutti i cristiani*, Bologna 2007; W. Kasper, *Sacramento dell'unità. Eucaristia e Chiesa*, (GDT 305) Brescia 2004; M. Florio-C. Rocchetta, *Sacramentaria speciale I*, (Corso di Teologia sistematica 8/a), Bologna 2004.

125)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11항 참조.

126)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4항.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이루는 참다운 친교는 하느님 안에서 오로지 그분 안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의 구원 권능에 국경과 정치 경제 체계, 문화와 문명과 진보의 방대한 분야들을 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¹²⁷⁾

이 일치는 민족들 사이의 다름을 없애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사회적 역사적 존재이며 다양한 모국어(를) 통해 다양한 문명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기를 바라셨습니다.¹²⁸⁾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일치는 혼돈도 아니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두대로 보내 버리는 위선적인 우애도 아닙니다. 일치는 성령의 선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언어들의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이가 같은 성령을 통하여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중부 유럽의 민족들은 역사의 풍파에 휘말려 자주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참사에도 이 민족들은 그들을 계속 일치시키는 깊은 유대, 곧 그리스도교 신앙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이 지역과 전 유럽과 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찬례 거행은 이 민족들이 지닌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소속감을 보여 주는 표지이자 도구가 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중부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주교회의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여 성찬례를 함께 거행하였고 화해의 표징으로 공동 선언들에 서명하였습니다.¹²⁹⁾ 실제로 “분쟁 중인 민족들이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그 예언적 선포를 듣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고,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친교를 이루는 회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찬례 거행 덕분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자매들 사이에 친교를 강화하고, 불목하고 있는 이들이 대화와 정의를 통하여 하루 빨리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¹³⁰⁾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성체대회는 기억에 대한 치유의 여정을 지속하고,¹³¹⁾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대의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온전한 화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¹³²⁾ 성체성사는 성찬례 거행으로 의미하는 바를 삶으로 이루게 됩니다

127) 요한 바오로 2세, 즉위 미사 강론, 1978.10.22., AAS 70(1978), 944면 이하 참조.

128)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o del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384-387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제1판), 291-294면 참조.

129) 예를 들어, 2008년 6월 28일 헝가리 국립 마트러베레베이-센트쿠트(Mátraverebély-Szentkút) 성모 성지에서 헝가리 주교회의와 슬로바키아 주교회의가 함께 성찬례를 거행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주교회의와 체코 주교회의의 공동 문서 *Versöhnte Nachbarschaft im Herzen Europas*가 발표되었다. 2004년에는 오스트리아 마리아젤에서 중앙 유럽 가톨릭 만남이 있었다.

130)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1차 정기 총회, 성체성사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건의안(*Proposizioni del Sinodo sull'Eucharistia*), 2005.10.22., 49항, in *Enchiridion Vaticanum* vol. 23, 771면.

131) 이 말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이다. 이 개념은 2000년 대희년의 상황에서 생겨났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삼천년기」(*Tertio Millenio Ineunte*), 1994.11.10., 33-35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제1판); 칙서 「강생의 신비」(*Incarnationis Misterium*), 1998.11.29., 11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0호(199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면 참조.

132) 화해의 여정에 대한 신학적 근거들은 다음의 문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신학위원회, 「기억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Memoria e Riconciliazione: La Chiesa e le colpe del passato*), 1999.12.,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5호(200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65면 참조.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00307_memory-reconc-itc_it.html

모든 유럽 국가는 저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유한 전통과 특색에 따라 성체 신심을 표현해 왔습니다. 주님 성체 축일의 행렬, 꽃으로 장식한 양탄자, 장엄 성체 조배, 성 금요일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축성한 예물의 전례, 첫영성체 축제는 중부 유럽 민족들을 결속시켜 줍니다(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우리 문명은 같은 샘에서 힘을 길어 올려 유럽의 영적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개별 교회들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여러 도전에 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일치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사건들에서 비롯되는 다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치는 공통된 그리스도교 영감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 전통을 형성하고, 사회와 교회 양 차원에서 저마다의 가치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알아 가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¹³³⁾

이 모든 것은, 깊은 성체 신심의 사람인 체페리노(Ceferino) 복자를 그들의 수호자로 모시는 우리 루마니아 형제자매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성체 신심은 1965년 그들의 순례단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한 집시들을 기억하며 철사를 엮어 만든 성광을 바오로 6세 교황님께 헌정하였을 때 입증되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어떤 문명이든, 그 문명을 낳은 살아 있는 신비와 계속 맞닿아 있을 때에만, 언제나 살아남는다고 천명하였습니다.¹³⁴⁾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생겨났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하신 호소를 받아들여, 우리는 이 생생한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유럽] 여러분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보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복음에서 이끌어 온 원칙들에 바탕을 두게 하였고, 이에 대한 흔적은 여러분 각 나라의 예술과 문학, 사상과 문화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단지 과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발전 단계에 있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 유산은 함께 유럽 대륙을 형성해 온 개인과 민족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¹³⁵⁾

133) 「유럽 교회」, 4항 참조.

134) M. Buber, *Prolusione a Froncoforte*, 1922.

135) 「유럽 교회」, 120항.

9.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참된 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의 마지막 제6장에서 신자들을 “성찬의 여인이신 성모님의 학교”로 불러 모으시며 다음과 같이 천명하십니다.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고 의지하는 교회는 성모님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와 맺고 계시는 관계에서도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¹³⁶⁾ 또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우리도 성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찬 신비를 기리고 실천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다. 성찬의 신비는 “교회의 보화, 세상의 심장,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성취에 대한 보증”¹³⁷⁾입니다.

마리아와 성체성사 사이에 깊은 관계는 특히 ‘교회 헌장’ 제8장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헌장에 따르면 “마리아께서는 실제로 구원의 역사 속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시어 신앙의 최고 진리를 어느 모로 당신과 결합시키고 반영하십니다.”¹³⁸⁾ 성체성사는 신앙의 이러한 최고 진리들에 속합니다. 곧, 성체성사는 가장 탁월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또한 마리아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모범이 되는 “성찬의 여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루는 완전한 일치” 영역 안에서 “교회의 전형”¹³⁹⁾이신 동정 성모님에 대한 교부들과 공의회가 가르침에 바탕을 둘 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6세의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Marialis Cultus*)은 이 교리를 전례에 적용하여, 전례가 마리아에게서 영감을 받아 거행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고 생활화하는 교회가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의 모델”¹⁴⁰⁾입니다. 또한 이 문서는 마리아를 ‘깨어 있는 동정녀, …… 기도하는 동정녀, …… 동정녀-어머니, …… 봉헌하는 동정녀’(「마리아 공경」, 17-20항 참조)로서 제시하고, “교회가 하늘의 성인들과 특히 복되신 동정녀와의 친교 안에서 거행하는”¹⁴¹⁾ 성찬의 희생 제사 안에 마리아께서 현존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신자 공동체는 “성찬의 여인”이신 마리아 안에서 자신의 가장 탁월한 표상을 보고, 마리아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성찬 삶의 모범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제는 제대 위에 계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참된 몸’(verum Corpus natum de Maria Virgine) 앞에서 전례 회중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제1양식에 나오는 ‘저희는 ……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하는 기도문을 바치는 것입니다”(「사랑의 성사」, 96항). 동방 그리스도교 전승의 감사 기도에서도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공경합니다.

“그분께서는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Tota pulchra)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가 퍼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례 모임들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천상 전례의 아름다움이 성모님 안에서 거울처럼 충실히 비쳐지고 있습니다.”¹⁴²⁾ 따라서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자 노력하면서 성찬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136)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3항.

137)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9항.

138) 교회 헌장 65항.

139) 교회 헌장 63항.

140)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Marialis Cultus*), 1974.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제1판), 16항.

141) 「마리아 공경」, 20항 참조.

142) 「사랑의 성사」, 96항.

또한 신자들은 온 공동체가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흠 없는’(콜로 1,22; 에페 1,4 참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제사에 완전히 결합되며, 성모님의 정신을 교회의 정신으로 삼습니다.”¹⁴³⁾ 그리하여 교회는 성찬례의 관점에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의 노래’(Magnificat)를 노래합니다. 진정한 ‘성찬의 자세’는 바로 감사와 찬미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종말론적 긴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씨앗은, 하느님께서 드높여 주신 보잘것없는 이들의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종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제자들을 자기 봉헌과 섬김의 성찬 양식을 향하여 계속 이끄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바로 그 불을 놓아 주시고(루카 24,13-35 참조), 전례 예식에서 퍼져 나오는 빛과 아름다움을 통하여 성찬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례 예식이야말로 그리스도 파스카의 효과적인 표징이며 하느님 영광의 자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기쁨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충실한 길벗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당신 몸인 교회의 신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시대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¹⁴⁴⁾

이 사랑의 신비에 대한 증인으로서 기쁨과 경이로 가득 차 거룩한 성체를 만나 뵈러 계속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포합시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원문: Pontificio Comitato per i Congressi Eucaristici Internazionali, “*Sono in Te Tutte le Mie Sorgenti*”, Riflessioni teologiche e pastorali in preparazione al 52° Congresso Eucaristico Internazionale di Budapest(2020.9.13-20.)>

143)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8항.

144) 이러한 성찰에 관해서는, 「사랑의 성사」, 96-97항 참조.

제52차 세계성체대회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사랑의 샘인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으로
당신 백성을 기르시고자 불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희생제사와 주님의 현존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양식이 되는 빵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종으로서
교회들과 민족들의 화해를 위하여 이바지하며
당신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유일한 주님이심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원문: Preghiera per il Congresso di Budapest>